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11월 17일 오후)

논

술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험번호 () 지원학과(부)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As we grow older, we rely on communication to survive and to thrive. Our effectiveness in communicating affects what jobs we get and how much we earn to pay for medical care, food, leisure activities, and housing. Recent research shows that positive, cheerful communication from casual acquaintances and neighbors increases our sense of well-being. Even more important to our health is good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close friends. Heart disease patients with str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ffer less than those without such relationships, cancer patients who are married live longer than those without a spouse, and arthritis* patients who have strong social support experience less severe symptoms than those without such support.

- Julia Woo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veryday Encounters*

* 관절염

<제시문 B>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can occur on a large scale, such as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as well as on a smaller scale between individual employees. Failure to communicate effectively often leads to conflict, which can be harmful to an organization. For instance, an employee may be waiting for a colleague to deliver key information to complete a task on time. If the colleague does not respond to the request for a status report or neglect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e employee may begin to worry that the required task will not b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As a result, conflict between the two may occur.

- *The Houston Chronicle*

(자료 1)

미국의 한 동물 심리학자가 동물들의 의사 전달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굶주린 침팬지 두 마리를 울타리 안에 넣고 밖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는 상자를 놓아 두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줄을 울타리 안으로 늘어 놓았다. 허기진 두 마리의 침팬지는 단숨에 손을 뻗어 그 줄을 각각 하나씩 잡고 힘껏 바나나 상자를 끌어당겼지만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둘이 힘을 합해서 동시에 줄을 잡아당길 때만 상자가 끌려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마리는 계속 승강이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서로 줄을 잡아당기다 보니 우연히 둘의 호흡이 맞을 때가 있었는데, 이 때 상자가 약간씩 움직였다.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두 마리의 침팬지는 드디어 서로 힘이 합해 질 때만이 상자가 끌려온다는 사실을 알아 내고 결국 상자를 끄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에서 그 중 한 마리를 다른 것과 바꿔 넣었다. 한 마리는 상자를 끌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은 처음의 실험에서와 별 차이가 없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자료 2)

환공이 회당 높은 곳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고, 윤편은 회당 낮은 곳에서 수레를 깎고 있었다. 윤편이 환공에게 물었다. “공께서는 지금 무슨 말들을 읽고 계십니까?” 환공이 “성인의 말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윤편이 “그 성인은 살아 있습니까?”라고 묻자 환공은 “그는 죽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윤편은 말했다. “그렇다면 공께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옛 사람들의 찌꺼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환공이 말했다. “수레바퀴나 깎는 장인인 주제에 내가 지금 경전을 논하려 하는가!” 그러자 윤편이 말했다. “저는 그것을 제 자신의 일에 근거해서 본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영성하게 작업하면 험령해져 견고하게 되지 않고, 꼭 끼게 깎으면 빠듯해서 서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영성하지도 꼭 끼지도 않게 작업하려면 저는 그것을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제 아들에게 전달할 수 없고 제 아들도 저에게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70이 되도록 제가 직접 바퀴를 깎고 있는 이유입니다. 옛 사람은 자신이 전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께서는 지금 옛 사람들의 찌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강신주,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자료 3)

사람다움 혹은 사랑으로서의 인(仁)을 제시한 공자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근원적 동일성(같음)과 연관성(평등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끼리 혹은 우주만물과도 함께 서로의 다양성(다름)을 다양성으로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이도관지(以道觀之)와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은 연기설(緣起說), 공(空)과 중도(中道),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만물을 이것과 저것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있음과 없음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내가 소중할 만큼 너도 소중하다는 사랑이 우러나오게 된다고 했다. 원효는 긍정과 부정, 분석과 종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하는 화쟁(和靜)의 논리를 제시했고, 퇴계도 분석과 종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같음 가운데서도 다름을 보고 다름 가운데서도 같음을 보는 변증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자료 4)

용자의 아래위를 훑어보던 세탁소 주인 남자가 제 세탁소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 자식들, 우리 한국 와서 돈 엄청 벌었을 것이여?”
웃을 기다리던 남자가 맞장구를 친다.
“하여간 여기 가리베가스 상권을 요새는 그자들이 다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온 자들이라 그런지 의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저 앞에 군복 말여, 나 오천 원에 떼와 육천 원에 팔아. 그런데 이 떠놈들이 그걸 삼천 원에 달라 그래, 내참.”
“거 뭣이나, 나는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해썬 목사, 교수들 말 듣고 분개까지 했다니까. 뭘? 펍박?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녀? 어이, 김사장, 삼십 년 전에 우리 막 서울 와서는 어쨌어. 자국민 펍박받을 때는 암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외국인들 인권이 어찌네, 야만이네, 하여간 배운 인간들 하는 짓거리란 이제나저제나 맘에 안 들드만 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유식한 인간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자국민 이기주의라나, 뭐라나, 우리같이 못사는 자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자국민 이기주의 해야지 안 해?”

숫제 용자의 존재는 무시하고 저희끼리 시끄럽다.

- 공선옥, 「가리봉 연가」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우리말로 기술하고, 공통된 논지를 밝히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된 논지와 관련하여 (자료 1)과 (자료 2)에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가 (자료 1)과 (자료 2)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4)에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유형들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자료 3)의 관점에서 두 남자의 의견을 비판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지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2013학년도 일반전형 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2012. 11. 17. 오전 - 영어, 동양어대학]

[2012. 11. 18. 오전 - 일본어, 상경, 글로벌경영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2013학년도 일반전형 논술고사에서는 ‘정체성(identity)’과 ‘우선순위(priority)’을 각 시험[17일 오전(영어, 동양어), 18일 오전(일본어, 상경, 글로벌경영)]의 핵심어로 하여 <제시문>과 (자료)를 구성하고 [문제]를 만들었다. <제시문>과 (자료)는 주제와 관련한 개념적 논의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제시문>과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과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유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제시문> 두 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제시문>을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었다. 영문 <제시문>은 1차적으로 현행 영어 교과서에서 뽑으려 하였다. 17일 오전(영어, 동양어), 18일 오전(일본어, 상경, 글로벌경영) 문제의 경우 <제시문>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영어 교과서에서 선정하였다. 영어 교과서에서 뽑지 않은 <제시문>도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한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글이다.

(자료)를 선정할 때에도 교과서를 참조하였다. 17일 오전(영어, 동양어) 시험의 (자료) 중 테세우스의 배에 관련된 자료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현진건의 「고향」은 여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18일 오전(일본어, 상경, 글로벌경영) 시험의 (자료) 중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또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자료로 실려 있으며, 세계문학 관련 서술에서 언급되는 작품이다.

인용한 <제시문>과 (자료)는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고,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영문 <제시문>과 국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7일 오전 (영어대/동양어대) -

<제시문 A> *High School English II*

이름에 담겨 있는 여러 요소들(예컨대 선조의 역사 등)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제시문 B> John E. Joseph(2004), *Language and Identity*

국가의 정체성이 국가 공용어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서술함.

(자료 1) Plutarch, *Lives*

물리적으로는 다르나 기능이 동일할 수 있어 사물의 정체성이 애매함을 테세우스의 배로 예시함.

(자료 2) Heidegger(1962), *Being and Time*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물이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어 사물의 정체성이 애매함을 망치로 예시함.

(자료 3) Kari Gibson(2004), “English Only Court Cases Involving the U.S. Workplace”

화자의 언어가 청자에 따라 화자의 의도와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자의 정체성이 달리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자료 4) 현진건(1926), 「고향」

한, 중, 일 삼국의 옷을 입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소설 속 인물의 정체성이 애매함을 묘사하고 있음.

- 18일 오전 (일본어/상경/글로벌경영대) -

<제시문 A>

Milton Friedman(1962), *Capitalism and Freedom*

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우선순위는 이윤 창출에 있음을 서술함.

<제시문 B>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기업의 우선순위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서술하고, 예로 태안 반도의 사태를 듦.

(자료 1) Maryna Tsehelska(2006), “Teaching Politically Correct Language”

개인이 타자를 배려하는 현상의 하나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의 사용을 서술함.

(자료 2) Richard Dawkins(1976), *The Selfish Gene*

유전자의 최우선순위는 자기의 생존과 재생산에 있음을 보여줌.

(자료 3) William Frankena(1963), *Ethics*

개인의 실제 의무는 잠정적 의무 가운데 상황과 조건에 의해 결정됨을 예시함.

(자료 4) Sophocles, *Antigone*

국가의 법과 신의 법 또는 가족 윤리 사이에서 안티고네가 국가의 법이 아니라 신의 법(인륜)을 선택함을 보여줌.

<2013학년도 논술출제 방향>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문화(cultural), 언어(language) 연구를 내용요소로 한다.
- ②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 사회탐구 지문을 활용한다.
- ③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한다.

-형식적 측면:

- ① 제시문 두 개를 모두 영문 지문으로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을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핵심 논제(agenda)를 찾아내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③ 두 번째 문항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④ 세 번째 문항을 수험생의 창의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2013학년도 일반전형 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2012. 11. 17. 오후 - 서양어, 사범대학]

[2012. 11. 18. 오후 - 중국어, 사회과학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2013학년도 일반전형 논술고사[17일 오후(서양어, 사범), 18일 오후(중국어/사회과학대)]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친숙한 개념인 ‘소통 (communication)’과 ‘(자율) 규제(regulation)’를 핵심 주제로 하여 <제시문>과 (자료)를 구성하고 [문제]를 만들었다.

<제시문>은 2개, (자료)를 4-5개를 선정하여 선택된 주제를 다양한 분야의 사례에서 추출하고자 하였다. [문제 1]은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문제 2]는 <제시문>과 (자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상이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3]은 <제시문>과 관련하여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제를 분석·비판하는 창의적 사유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문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 및 논증능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은 모두 영문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제시문>을 사용한 이유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화된 교육 이념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이다. ‘글로벌 인재’는 국제 사회의 의사소통 매체이자 폭넓은 학문 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인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영어 <제시문>의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어휘와 문법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각 제시문의 어휘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150단어 내외를 사용하였다. 문법도 고등학교 공통 영어에 국한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영문 <제시문>과 국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7일 오후(서양어대학/사범대학) -

<제시문 A>

출처: Julia Wood (201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veryday Encounters.

요지: 우리의 삶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제시문 B>

출처: Christ Joseph (2012). How does a lack of communication cause conflict in the workplace?

요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자료 1)

출처: 김병무 외(2011). 『고등학교 사회·문화』

요지: 칠판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자료 2)

출처: 강신주(2007).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요지: 언어도 의사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

(자료 3)

출처: 오경석 외(2009).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요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자료 4)

출처: 공선옥(2005). 「가리봉 연가」

요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 계층 간, 그리고 이념적 대립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

이 표출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 18일 오후(중국어대학/사회과학대학) -

<제시문 A>

출처: 이찬승 외(2010). High School English II.

요지: 인터넷 규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억압할 수 있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

<제시문 B>

출처: Michael Faure et al. (2003).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요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료 1)

출처: 민현식 외(2011). 『고등학교 국어』,

요지: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 사용을 규정화해야 한다.

(자료 2)

출처: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지: 사회적 규범이 천재성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자료 3)

출처: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요지: 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특정 부류의 이익을 위한 규칙은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자료 4)

출처: 유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요지: 어떤 의사소통행위가 규범이나 규칙이 되려면 그 내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표명되어야 하며, 수용자가 그것을 타당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자료 5)

출처: 신문 기사. 부분 수정

요지: 강력한 흡연규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인용한 <제시문>과 (자료)는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고,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다. 외국어 자료는 원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2013학년도 논술출제 방향>

-내용적 측면:

- ① 소통(communication)과 규제(regulation)를 주요 내용을 선택하였다.
- ②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 외국어, 사회·문화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 ③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제시문 두 개는 모두 영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 ② 핵심어(key word)나 핵심 논지(agenda)를 찾도록 하였다.
- ③ 내용 파악, 비교·분석 및 창의적 의견 개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3단계 문제를 제시하였다.